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성서적 전통에서 성서 낭독의 기능

필립 타우너*

양재훈 번역**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디모데전서 4:13에 있는 세 가지의 행동들 즉 성서의 낭독, 훈계, 그리고 가르침이 예배 모임에 있어서 전형적인 요소들이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성서와 관련된 행동들을 강조하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이단들이 출현했다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서 낭독이 하는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개론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4:13을 그냥 읽어보아도 그 가르침들의 이면을 캐내려면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유대교와 초대 교회에서 성서 낭독이라는 큰 배경을 보아야 하고, 둘째로 낭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의 상황과 몇 가지 평행되는 점들을 보아야 하며, 셋째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주어진 에베소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읽기”라는 말에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이 따로 붙어 있지 않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올 때까지 성서를 낭독하는 일과, 훈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는 그 가르침 안에는 사실상 읽기, 훈계,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세 가지 행동의 목적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의 목적어가 “성경”이라고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 우리는 우선 이 가르침 안에 나타나 있는 행동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어떠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을 살펴볼 것이다.

1. 교회에서의 성경 낭독의 선례들

유대교에서의 낭독. 디모데전서 4:13에서 성경 낭독에 대한 것은 유대교 회당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총책임자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안에서 성경을 낭독하던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확실하다.¹⁾ 신약성경에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던 이런 행동들이 형성된 방식에 있어서 사실상 기존 유대교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²⁾ 회당, 특히 디아스포라의 회당에서 행해지던 예배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 방식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기독교 문헌자료에 언급된 예배의 모습이 그 당시 예배의 표준적인 요소들이었음을 암시해준다.³⁾ 바울 서신 가운데 중요한 축이 되는 사도행전 13:15; 15:21; 고린도후서 3:14 등과 같은 부분은 회당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행위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것은 설령 디모데전서가 이들보다 후대의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이 구약의 문서들로 — 그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든 아니면 바울의 교회들에서 흔히 그러했듯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었든 상관없이 —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것의 범위가 단지 구약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서 고린도후서 7:8; 데살로니가전서 5:27; 데살로니가후서 3:14 등에서 보듯이 복음서 전승이라든지 바울의 편지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편으로 고려해볼 만 하지만, 그래도 당시에 성경이라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문서들로 이루어졌었다. 이 논문에서는 바울의 편지와 예수 전승이 여전히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던 과도기적 자료들이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디모데전서 4:13도 이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성경을 공공 장소에서 낭독했다는 가장 초기의 증거는 느헤미야 8:7-8에 나오는 집회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지침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πρόσχε τῆ ἀναγνώσει* (“[말씀을] 읽는 일에 착념하라”)가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예배 모임과 관련한 회중 앞에서의 낭독을 가리킨다고 본다. 마운스(W. D. Mounce, *Pastoral Epistles*, WBC 46 [Nashville: Thomas Nelson, 2000], 200)는 그 배경으로서 회당에서 이루어지던 성경 낭독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읽는다”는 행동이 디모데 개인에게 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디모데는 성경 말씀에 빠져야 한다.” 이 명령을 말할 때 2인칭 단수가 사용되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개인적인 읽기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은 당시 이단적인 본문을 읽었던 비정통적인 사람들로부터 회중들을 이끌어내어 다시금 그들이 정통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Cf. L. T. Johnson,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imothy*, AB 35A (New York: Doubleday, 2001), 252.
 - 2) 후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식 목사들이 되었다. Justin, *1 Apol.* 67; Tertullian, *Praescrip.* 41.8; *P. Apoll.* 99.5; cf. H. Leclercq, “Lecteur”, *DACL*, 8:2, col. 2242ff; J. M. Nielen, *Gebet und Gottesdienst im Neuen Testament* (Freiburg, 1937), 182ff를 보라.
 - 3) 이에 더불어서, 각 명사들에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전형적이거나 익숙한 행위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πρόσχε τῆ ἀναγνώσει, τῆ παρακλήσει, τῆ διδασκαλίᾳ*).

『새번역』 느 8:7-8

7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8 하나님의 율법 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회당에서의 낭독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에 회당 예배에서 이루어지던 낭독 행위의 기본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비슷하며, 쿰란 공동체에서도 회중 집회에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이하는 등과 같이 유대교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열 사람의 모임 장소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해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7. 항상 서로 돌아가며 해야 한다. 매일 밤 혹은 매년 삼분의 일 동안에 회중은 책을 읽고 그 규율을 풀이하고 서로 축복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1QS 6:6-8. 또한 8:11-12; 9:12-14도 보라. 1QpHab 2:6-9 참고).

1세기에 이루어졌던 유대교의 예배 절차의 틀이 실제로 어떠한지 재구성해 보려면 쿰란 문서와 신약성경 문서(마 23:6; 막 12:39; 눅 11:43; 20:46. 에세네파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대해서는 Philo, *Every Good Man is Free*, 12.81을 보라)를 참고하면서 미쉬나(mMeg 4; mMeg 2)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문서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회당에서 드러졌던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매우 근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좌석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앞자리에는 특별한 멤버가 앉고 젊은 멤버는 뒤쪽에 앉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분리되어 앉았다는 것도 추측해볼 수 있다), 우리는 토라와 예언서 낭독 뒤에 제사장의 축복 순서가 이어서 나오도록 성경 낭독이 세심하게 구성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토라와 예언서 낭독에 앞서서 쉘마 암송과 기도가 있었다).

만일 모인 사람이 열 명 이하인 경우 축복문과 더불어서 쉘마를 외울 필요는 없다. 또한 언약궤 앞에 나아오지 않아도 되며, 그들의 손을 들거나 율법과 예언서 가운데서 [정해진 부분들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 또한 금육(禁肉)을 하지 않아도 된다...(mMeg 4:3)

또한 우리는 성경 낭독이 회중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mMeg 4:4-6).

물론 이러한 개방성에도 분명히 예외는 있었다. 만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낭독할 자격을 얻었다(mGit 5:8). 토라 낭독은 모세 오경 전체를 3년 주기로 하여 순차적으로 읽도록 배열되었다(mMeb 29b). 마소라 본문에서 모세 오경을 154 부분으로 배열한 것은 어쩌면 이 3년 주기는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물론 161이나 175 부분으로 배열한 것도 있다). 몇몇 멤버들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ἀρχισυνάγωγος: god 13:15; 18:8, 17 etc) 성경 낭독을 했었을 것이다. 안식일 예배에서 적어도 일곱 명(평일보다 적게)이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들 가운데서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시작과 끝에 각각 축복 선언을 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역(미쉬나에 나오는 예배 형태)에서는 기타 지역(탈무드에 나타나는 예배 형태)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낭독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Philo, *The Special Laws*, 2.15.62를 보라).

신약 시대에는(눅 4:17; 행 13:15; mMeg 4:1-5를 보라) 토라를 낭독할 때 예언서도 함께 낭독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4:16-20에 잘 묘사되어 있다.

『새번역』 눅 4:16-20

16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17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다소 전형화된(stylized)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정경을 벗어나서 필로가 뒷받침해주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진다(*On Dreams*, 2.2176: “너희가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당에 여전히 앉아서 너희 거룩한 책을 자세히 읽고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모두 풀이하며, 너희의 모든 시간을 들어가면서 너희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오래도록 즐겁게 토론하겠느냐?”; cf. *Who is the Heir*, 253).

예언서를 읽고 난 뒤에는 예배를 마무리하고 사람들은 흩어진다.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그 낭독을 위해서 예언서 말씀을 골라내는 일도 함께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언서 낭독을 위해 따로 읽혀질 말씀 구절들

의 순서를 계획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미쉬나 이후 시대에는 예배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읽을 예언서 본문들이 미리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13에 암시되어 있는 예배 순서에 대해 다음 한 가지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풀이하는 일 즉 설교이다. 첫째, 낭독되는 성경 말씀의 언어가 점점 더 회중들에게 익숙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번역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것이 바로 타르쿰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아람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회당의 지도자가 본문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었는지 그 증거가 분명하지는 않다. 어쨌든 번역은 토라를 낭독하면서 한 절 한 절 번역하는 식, 그리고 예언서의 경우는 한 번에 세 절을 번역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글이 아닌 말로 이루어진 번역 작업이다. 기록된 타르쿰에서 번역한 것을 가지고 낭독을 했다는 증거는 4세기까지 없다(yMeg 74d).

둘째, 성경 낭독에 뒤따라서 설교와 같은 순서가 이어졌는데, 이 순서에서는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를 위해서 낭독된 말씀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신약성경의 기록이 바로 회당 예배에서 이런 순서가 있었음을 증명한다(e.g. 마 4:23; 막 1:21; 눅 4:15 etc. 필로(Philo)와 콤파 공동체도 참고하라).

그레코-로마 사회의 낭독. 거의 대부분의 신약 시대 교회, 특히 바울의 교회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배경을 연구하려면 그레코-로마 세계와의 평행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대 유대와 그리스 문화에서 읽기와 쓰기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어렵잡은 최종 결과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밀라드가 제안하듯이, 유대 사회에서 글을 깨우치는 상황은 그레코-로마 사회에서보다 더 나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모임 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강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는 y. Ket. 8.32c[이것은 BCE 100년 정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를 보라. 요세푸스, 아피온 반박문 2.178). 그러나 사실상 실제로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흔히들 그레코-로마 문화를 가리켜 “글을 깨우친 문화(literate culture)”라고 하지만, 실제로 글을 깨우친 사람들은 매우 적었고 제한된 사람들만이 글을 깨웠다(적어도 오늘날 “글을 깨쳤다”라고 하는 뜻에서 볼 때).⁴⁾ 이 시대에 만들어진 문서들에 나타난 확실한 구두적 요소(oral features)들을 생각해 볼 때, 당시 문서들은 말로 전달하고 청중들이 소리로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 기록되었던

4) 상인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모두 문서들을 다루어야 했기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어도 제한된 만큼이라도 글을 읽을 줄은 알았다.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글로 기록된 본문은 상당히 비쌌고 그것을 구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책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동체를 위해서 구두로 그것을 읽는 방식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구두 문화가 더 흥행했던 것이지 사람들이 읽을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시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나 표지판 등과 같은 것들을 읽는 것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는 것과 이러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논의들이 그리스적 배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에픽테투스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읽어줄 터이니 와서 잘 들으라’고 말할 때 내가 가려는 길을 헤매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기록했다(3.26.6; Plutarch, *Alex.* 1.1; 23.3도 보라). 학자들에게서 배우는 일은 학교에서 시작했는데(Plato, *Leg.* 810b), 만약에 학생이 글을 잘못 읽거나 더듬거리면서 글을 읽으면 종종 대단한 망신을 당해야만 했다(Plautus, *Bacch.* 423ff). 수사학을 가르칠 때 읽기 훈련은 아주 기본이 되는 요소였는데, 왜냐하면 공식적인 시험을 치를 때 설명-연설(recitation-declamation)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본문을 그 자리에서 읽고 즉석에서 그 본문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Plutarch, *De aud. Poet.*).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당시에는 글로 기록된 이야기의 내용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났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유대인들이 성경 본문을 경외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유대적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읽기 능력에 대해 중요시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이 되었던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상관없이, 기독교 교회에서 글을 읽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질적으로 검증된 높은 수준을 지닌 사람이어야 했을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리스 종교적 세계에서 공적으로 낭독을 한다는 것은 (텔피의 신탁과 관계된 것처럼 보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혹은 신비적 종교의식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던 상관없이) 팔레스타인 교회들에서 성경 낭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고대 시대에 보다 관련된 텔피 신탁 제의는 그리스 세계에서의 삶에 있어서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리스 세계에게 매우 훌륭한 시금석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일반적으로 당시 이들은 도시-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강화시켜주는 이것의 역할은 과대평가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라는 광범위한 종교적 카테고리는 근본적으로 신약

시대와 보다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이것은 특별히 단일화되고 안정되어 예측 가능한 종교적 문화적 현상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제 드러난 자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우네(D. E. Aune)는 고대 종교들에서 행해지던 예식 행위들에 대해 우리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대 문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그들의 시대를 재구성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추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당시 행위들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읽기 행위와 이야기하는 행동(처음에는 구두전승으로 내려오다가 추후에 글로 기록되어 읽혀졌던 문서들을 읽어주거나 말해주는 것)이 그 집단의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했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암송되고 실행되었을”(Pausanians, 8.6.5) 신화(e.g. 디오니시오스 미트라[Dionysius, Mithras])를 비롯하여, *Hymn to Demeter* 참조)가 그 집단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였다는 점이다. 나름대로의 종교적 예식에 의해 이루어지던 그 집단의 중심적인 신화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반면에 입교 의식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졌고, 이 중심적인 신화와 더불어서 입교 의식 때에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이 집단이 나름대로 독특성과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는 주된 요소들이었다.

신약성경의 교회와 그것의 출발점이 되었던 유대교에서의 신념과 예식 행위들 사이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생각할 때, 디모데전서에 묘사된 에베소에서와 같은 바울의 교회가 그 예식의 형식이나 관례들에 있어서 다른 이방 종교들을 모방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읽고 이야기하는 행위들이 갖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레코-로마 세계는 분명히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더 자세한 것은 아래를 보라).

2. 디모데전서 4:13에서의 성경 낭독에 대한 고찰

디모데전서 4:13에 언급된 성경 낭독 행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디모데전서는 회당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회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울 교회에게 주어진 글이라는 점이다. 디모데전서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있지만, 이 편지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지역의 부흥을 통해 생겨난 바울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 즉 이 교회는 처음에는 회당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분리해서 나왔으며, 공동체가 계속 자라나 폭동 사태도 벌어졌다. 사실 디모데전서는 (만일 진정

성이 있다고 본다면) 바울이 아가야나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서, 폭동이 발생한 직후 당시의 교회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 분리되어 나온 교회가 비굴하게도 미쉬나라든지 탈무드에 나타난 예배 형태를 따라했다고 굳이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러한 예식 형태가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굳이 의심할 이유도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 뒤에 언급된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라는 말은 회당에서 성경 낭독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설교에 상응하는 것이다. 바울의 공동체에서 읽는 행위가 타르굼 식 읽기를 할 필요가 없는 칠십인 역을 가지고 그리스어로 이루어졌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

3. 유대교와 기독교에서의 성경 낭독의 기능

디모데전서 4:13의 배경을 보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들에서 성경 낭독이 가졌던 기능에 대해 엿볼 수 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지침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학자들은 저자가 “디모데”라는 것을 단지 목사라는 직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후 세대(사도 이후 세대)에게 교회의 예배에 대한 지침을 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 1:4-7과 4:1-3은 4:13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반대파 집단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종교의 본문들도 더불어서 마음대로 사용했을 것(이들은 다양한 밀의 의식에서 비롯되었을 “신화와 족보”에 대해 연구했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차지 하던 지위라든지 그들의 신비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예배는 새로운 신학적인 가르침을 연구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형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구약의 일부 본문이 너무 많이 비정상적으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종식시키고 교회의 리더십 조직과 안정성을 다시금 확보하라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1:3-5)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조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맞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성경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들 즉,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낭독한 후에 그에 따르는 실천이 삼위일체가 되어 강조되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러한 예식적인 성경 낭독과 해설이 바울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예배의 일반적 혹은 전통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말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성경 낭독이 가졌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내러티브와 인간의 사회적 경험, 그리고 읽는 행위의 역할과 해석학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들 안에서의 독자, 그리고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상이한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의미 결정에 있어서 독자/청자의 위치에 대한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 독서 행위와 관련하여, 혹은 집단적인/공적인 독서 행위와 관련하여 볼 때,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되는 그 분기점은 어떤 본문을 읽거나 듣는 행위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모습을 만들고, 그것을 정의하거나 재정의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서이다. 유대와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 낭독이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역사적인 묘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성경은 항상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질문 즉,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읽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보다 이차적인 질문들(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 역시 여전히 우리의 곁에 항상 있으며, 이 거룩한 본문들을 일상적으로 낭독하는 것에 대한 교훈적인 반응으로 (타르굽 식으로 확대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주는 형태로서) 주어지고 있다. 비록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항상 이차적인 본문으로 주어졌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특별히 관련된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할 필요성은 공동체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외부적인 문제가 되었던 상관없이) 분명히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성경을 회중 가운데서 낭독하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강조가 되었다. 느헤미야서에 묘사된 사건이라든지 (위를 보라) 요시야 이야기 (대하 34:18-19, 30. 여기에서는 공개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이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모두 공동체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행위가 갖는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된 기능에 대해 빛을 던져주는 공통된 주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구약성경에서의 사건들에서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들은 포로기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고 영적인 포로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요시야의 경우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들의 정체성은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다시금 명시되고 다시금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적인 사건들은 성경 낭독이라는 행위를 백성들의 하나 된 정체성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낭독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문을 읽는 행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행위는 신명기 31:11-12에 나타나는 규례와 연결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새번역』 신 31:11-12

11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12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신명기가 언약과 그에 관련한 행위들에 대해 후대에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토라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것은 분명히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야훼로부터 비롯된 백성이라는 것과 자신들이 언약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읽혀진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후에 예언서들과 시편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미쉬나와 신약성경 본문이 확증해 주듯이). 그러나 야훼의 이야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 어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어떠한지 앞으로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야기를 길게 늘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포로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된 새로운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른 중요한 상징적인 예식 행위들과 더불어서 매주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살아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하는 기능을 했다.

신약 시대에 기독교 운동 안에서 성경 낭독의 기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다시금 새로운 현실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보다 커진 이야기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제 정기적으로 성경을 회중 가운데 낭독하는 것은 다양한 비유대인 개종자들이 체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수 세기를 거쳐 내려온 이야기 속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사건, 특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중요한 요소는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 사건의 의미를 연장하고 그것이 새로운 클라이막스의 시점에게 선포했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위기의 시점들은 그저 단순한 의식적 행위로 고착된 것들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얼마나 중

요한 것들인지 거듭해서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위기가 없다면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행동들(예를 들면 성경 낭독과 같은 것들)은 그저 말로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될 수 있다(cf. 사도행전 13:15; 15:21; 고린도후서 3:14에 나타나는 회당에서의 행위들). 위에서 인용한 구약의 예들을 볼 때 교회가 성경 낭독을 강조하는 전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본문들을 새롭게 읽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논쟁과 논란에 빠진 상황에서 디모데가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는 행동을 하도록 “주의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위기와는 좀 다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 낭독이라는 행위가 갖는 기능은 여전히 위기의 상황에서 그 빛을 발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1세기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기록된 문서나 이야기 혹은 성경과 연결시켰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권위 있는 버전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그 이야기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정체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배 모임이나 다른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서 이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 정체성 안에 존재하는 의미들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읽혀졌다.

그러나 역사적인 서술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 디모데전서 4:13에서 말하는 성경 낭독이라는 것의 의미 — 이러한 행위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각기 다른 기독교 전통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배 모임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각기 다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배 예식의 전통에서는 여전히 일 년 달력으로 구약, 시편,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에서 구절을 추려서 복합적으로 낭독할 말씀을 구성할 수도 있다. 비예식적 전통에서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의 본문에서 성경 말씀을 고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둥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방식들이 있다.

그러나 특히 성서적 전통에서 정체성을 만들고 성경 낭독이 갖는 기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서구 문명 세계에서 문맹이란 거의 없으며, 성경 책을 쉽게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옛날 성경이 만들어지던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개인이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경향이 더욱 많아졌다. 만일 성경을 회중 가운데서 낭독하는 것이 그저 그 당시에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문맹율도 높았고, 구

전 문화였으며 인쇄된 책을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책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문맹율도 낮으며, 사람들은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더 선호하고 성경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낭독 행위는 이제 의식으로서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규정짓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다시금 새롭게 정의를 내려가는 작업이 수많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혼자서 읽는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의미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성서 해석에 대한 공유되고 안정된 전통의 영향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경 읽기라는 것이 가지는 위협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개인적인 행위가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행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문화는 통일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반대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그리 놀랄 만한 것도 아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신약성경의 관점(롬 12:1-2; 요한계시록)은 이와 유사하다. 그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세계는 로마인들의 이야기들과 로마적 세계관이 풍미하던 시대였고, 그들은 다른 것들 중에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또 말함으로써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들(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등)에 위배되고 위협하는 메시지나 다양한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떤 위협이 되는지 규명해야 했었다. 그 당시 교회는 변혁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또한 어디로 가는가?)은 그들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결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으며, 이 연합된 단결이라는 가치가 문화적인 것으로 고착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오늘날 서구 세계와는 달리), 그것은 쉽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가정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모임은 단결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강화하기 위한 모임이 되었다. 단결을 도모하는 행위들 가운데(기도, 찬양, 성만찬 등), 교훈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고 메시아를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고전 10:11) 신앙 이야기들을 회중 가운데서 상기시키고 정기적으로 말하는 행위가 있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세계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증대시키는 세상적인 방편들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들 나름대로 방식으로서 1세기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신

약성경을 보면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도리어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들을 보면 다양한 위기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약성경에서 도움을 얻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상황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직면했던 도전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정통 기독교 가치 체계와 세계관에 도전하는 똑같은 문화적 세력과 메시지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다(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신자들은 이러한 대중 매체에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슨 방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채 그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증인으로서 분명히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단결할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이루어지는 상징적이고도 영적인 행위들 속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디모데전서 4:13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이 본문의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그 배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회중 가운데 낭독하는 것이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들과,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시고 발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행위를 재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솔직하게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이야기들(혹은 가치체계들)에게 현혹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낭독, 성서, 사회적 정체성, 예식 주기, 내러티브

<Abstract>

The Function of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in 1 Timothy 4:13 and in the Biblical Tradition

Dr. Philip Towner
(United Bible Societies Director of Translation Services)

Apparently, most commentators on 1 Timothy regard the instruction about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in 4:13 as envisioning the reading of a biblical text in preparation for its exposition in preaching. This is a superficial understanding that lacks an appreciation for the ways in which the public performance of the Scriptures, in the biblical tradition and Judaism, and sacred texts, in other religious/cultural contexts, functioned to construct and nurture the community’s social identity. Observations of this sort suggest the need to reassess the role of Scripture reading/performance in creating and reinforcing Christian identity in the church traditions of the twenty-first century.